

참교추 회원 기사란

『참교추 정기세미나를 마친 후에』

이대원 강도사 | 높은뜻교회



저는 그동안 매해 열리는 참교추 컨퍼런스나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참교추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려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기세미나 또한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온라인으로 모든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가지 점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글을 통해서 그 중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기세미나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함께 같은 조로 편성된 분들과의 교제였습니다. 한 조로 편성되어 토론도 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더 큰 친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또한 막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좀 더 구체적인 되어 마음을 더욱 담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교추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은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 안에서 적은 인원끼리 발제에 관한 내용을 토론 할 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전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발제시간 또한 좋습니다. “개혁신앙의 정수”를 미리 읽는 시간에도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제시간을 거치면서 이러한 관점이 더욱 선명하게 정리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 ‘행위의 법’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법’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조원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십계명이 행위언약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담은 언약을 명확하게 한 것도 유익했습니다. 십계명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의 요소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가 철저히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며 그것 밖에는 할말이 없다는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진행 된 새벽경건회와 Q&A 시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전히 제 마음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Q&A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사역에 임해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

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교추 정기모임이나 세미나는 항상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무언가 흐릿해져있고, 무언가 타협해가고 있던 영역들이 있는데 참교추 모임을 다녀오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쪽인지 다시 정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는데로 사역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익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동역자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참교추 칼럼

작심삼일(作心三日)

2021년 이시작되지 벌써 절반 가까이 가 훌쩍 흘러갑니다. 이시점이 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연초에 다짐하고 결심하였던 것들을 중간 결산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들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등에서 연초에 단단히 결심한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계십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였던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위해 은혜의 수단들에 충실하기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였던 마음들은 또 어떻습니까?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한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함'이 중요합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연초, 작심삼일

연초가 되면 세상은 '작심삼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간다'는 의미를 가진 우리말 속담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있는 낙약한 의지를 깨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자신을 이 말을 함으로써 은연중에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작심삼일'한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속에서 앞으로의 삶 역시 비슷할 것이라 여기고 숙명처럼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의미없이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작심'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곧이어서 '작심삼일'을 한 뒤 한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것이 우리가 '작심'을 하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무엇을 계획하고, 결단하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연한 의지를 앞세우기 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여호와를 간절히 의뢰하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는 힘입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께서

『안녕하세요! 김양수 목사입니다』

김양수 목사 | 하늘영광교회



안녕하세요! 하늘영광교회 김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참교추 정기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유익과 도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만남과 시간들을 허락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가장 감사했던 일은 주제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피셔가 저술한 개혁신앙의 정수를 읽고, 네 분의 목회자가 각각 자신이 많은 부분을 발제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평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제를 듣는 동안 제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소원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제발표 후에 가진 기도모임도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떨어져 진행했 행사이지만 함께 편성된 조원들끼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깊은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교추 회원들과 교회 그리고 사모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 조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참교추 회원들이 4명씩 한 조를 이루어

전체가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행사가 진행되어서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조를 이룬 참교추 목회자들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큰 유익과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채 목사님, 김완술 목사님 그리고 이성준 강도사님과 함께 세미나 기간 동안 형식적인 교제를 넘어서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섬기는 교회와 목회적 고민에 대해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함께 기도할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평소 정기 모임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번 참교추 정기 세미나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김영채 목사님께서 교회개혁과 복음전도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며 성장하게 하시는데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 QnA 시간에는 박순용 목사님께서 참교추 회원들의 목회 현장에서 흘러나온 고민들에 대해 답해주셨는데, 저는 박 목사의 답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 세미나 일정은 이쁘게도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참교추 정기모임 조편성

1조	김영제 배국환 김영일 강성대 서계길 김성민 임정택 김완술
2조	김훈 안기문 김용서 김시은 김영남 정병윤 김중구 강성일 이준동
3조	이성규 최은상 박지성 박경태 김중원 강육남 오준석 김대섭 박상우
4조	정중남 강동훈 이대원 정우열 김학재 강사명 이성준 차지태
5조	권오인 이원범 박충성 김선민 신용화 김양수 황병진

참교추 모임안내

정기 모임	매월	3번째주 월요일
정기 세미나	매년 5월	마지막주 월-수
컨퍼런스	매년 10월	마지막주 월요일
부부 수련회	매년 1월	마지막주 월-화
신입회원 나눔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2021년 회원교회

• 광명민음교회(광명)	• 영남교회(대구)
• 광야의성교회(수원)	• 오빈교회(양평)
• 높은뜻교회(성북)	• 은혜의교회(하남)
• 두루선교회(서초)	• 주의미교회(수원)
• 물안동산교회(강서)	• 참사랑교회(동대문)
• 백마누리교회(일산)	• 충만한교회(사충)
• 생철교회(김해)	• 하늘기쁨교회(부천)
• 세계로교회(시흥)	• 하늘영광교회(강동)
• 송정교회(포천)	• 함양민들레교회(함양)
• 심플교회(시흥)	• 범무림교회(영국)
• 양무리교회(강동)	

月刊 참교추

2021년 6월호 통권 5호

News

6월 정기 모임

- 6월 21일(월) : 10시 30분
- 오직 하나님께 영광 [15-23장]
- 삼위일체와 구속언약 [3부 4장]

6월 신입회원 모임

- 6월 28일 (월) : 오후 8시

정기모임 여름방학

- 기간 : 6월 22일 ~ 9월 19일
- 개강일 : 9월 20일(월) 정기모임



홍범진 목사 • 오준석 목사 • 김영남 목사



강동훈 전도사 • 정병운 목사 • 권오인 목사



영남교회(정병운 목사)

